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분석 연구*

배웅규** · 박태규***

An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 Design Contest for Making livable community building of Seoul*

Woongkyoo Bae** · Taegy Park***

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시행에 따른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서울시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시행 연도별로 출품 작품의 세부내용과 실제 사업화로 연결된 현황 등을 분석한다. 셋째, 학생공모전의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 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우수한 작품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인재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출품작품 분석이 전수 출품작 확보가 가능한 3~8회로 한정되었다. 둘째, 학생공모전의 성격상 작품이 아이디어 도출과 방향설정에 그쳐 실제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출품 작품만 대상으로 분석하여 작품제출자의 직접적인 의견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주제어 : 주거환경관리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저층주거지

ABSTRACT : The study was started in terms of the need to organize details of achievement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 design contests in Seoul. For this purpose, three purposes are established : First, it analyz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student design contest,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09. Second, we analyze the details of the work and the actual situation connected with actual commercialization according to the year of implementation. Third, it draws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 contes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tinuous monitoring of student contests is required. Second, the role of various participants in competition should be possible. Third, excellent works need to be linked to actual business. Fourth, it should be a place for excavation of young talent. The study had several limitations. First, the analysis of exhibits was limited to three to eight times when the total number of entries could be secured. Second, due to the nature of the student contest, the work is difficult to see as a real business plan because it only leads to ideas and directions. Third,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a direct opinion survey on the work submitted by analyzing only the work.

Key Words :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livable community building, Students ' contest, low-rise residential areas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Professor, Dept. of Urban Design and Studies Chung-Ang Univ.),

주·교신저자(E-Mail : baegogh@cau.ac.kr, 02-820-5849)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 주거지 정비의 역사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도심부근에 부족한 주택과 기반시설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고 합동재개발 시행에 따른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시행되었다. 서울시에서는 1980년대 들어 합동재개발방식의 시행으로 전면철거재개발방식이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 구역단위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활권 단위의 정비를 목표로 하는 뉴타운정책으로 이어졌다(한국도시계획학회, 2012). 하지만 공공 주택정책은 신개발에 따른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뉴타운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재개발·뉴타운방식이 민간건설사 주도로 기성 시가지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성을 우선시한 과도한 개발과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예정구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으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지금까지는 전면철거의 정비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저층주거지의 재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부터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세대·다가구밀집지역 등 전세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맹다미, 2016).

이 같은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하여 2002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저층주거지를 정비·개량·보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다. 결국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토지소유자, 세입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현장견학, 워크숍 등을 실시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학생공모전은 후속세대인 대학생이 주민과 함께 저층주거지를 재생하는 마을 만들기 방법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가 제공하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마을 만들기 방식을 점점 발전시키고자 학생공모전을 진행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하 '학생공모전'이라고 칭함)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 8회에 이르기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 개최되어 마을 만들기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제도화가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방식이 학생공모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참가작품에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거지 재생방식 개선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으려, 나아가 저층주거지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학생공모전 시행과정을 정리한다.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을 정리해 그동안 학생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한다. 둘째, 출품작품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출품작의 세부내용을 분석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출품 후 사업화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해 향후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학생공모전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생공모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학생공모전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과 시행작품을 분석한 내용이다. 시행과정은 제1회부터 제8회에 이르기까지의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시행작품은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총 8회(2011년 제외)에 걸친 공모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공모전 출품작품의 대상지를 감안해 서울시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공모전관련 시행결과 자료집과 관련 논문 등 문헌조사를 주로 활용한다. 논문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인터넷 키워드 검색, 서울시행정자료 등으로 관련 문헌을 집중 조사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생공모전 시행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3~8회에 출품된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학생공모전 1~8회 출품작품 전수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초기에 시행했던 1, 2회 자료는 유실되어 이를 제외한 출품작품 전수를 확인 가능한 3~8회를 대상으로 작품내용을 심층 분석한다. 셋째, 출품 작품의 세부내용은 유형화와 빈도조사를 시행하여 특성을 명확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공모전 참가자와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고, 출품작품 내 제안사업은 물론 공모전 시행 이후의 결과도 분석하게 된다. 넷째, 연구방법으로 도출한 분석 내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시가 향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시행 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의 등장과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1) 마을 만들기의 등장과 전개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의 번역어로,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1960~70년대 경제부흥과 고도성장기 시절 환경오염, 기존 정주환경파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 대도시권에서 도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지역사회를 재생하려는 마치즈쿠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1978년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이 제도화되었다(사또우 시게루, 2001). 1980년대 들어서면서 마을 만들기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는 전국 지자체에 마을 만들기 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만들기 정보센터 설치, 마을 만들기 펀드 등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마을 만들기의 영역과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최일홍, 2005).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후 주거단지를 대신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했다.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저층주거지에 살아있던 공동체와 서민 주거공간이 함께 사라지는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러한 부작용은 도시민 삶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이상훈, 2013).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각 지자체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같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이상훈, 2013). 조례제정과 같은 움직임은 마을 만들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대에도 지속되는데,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행 등 점점 더 마을 만들기의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마을 만들기는 기존 전면철거의 재개발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진행된다. 실질적으로 마을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프로그램까지 진행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마을 만들기를 더욱 확산해 기존의 정주환경을 보존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마을 만들기의 기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 연구의 주제인 학생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단독(다세대) 주택지 보전과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미래의 저층주거지 재생 전문가가 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또한, 시민에게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전반적인 사업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을 진행하기 앞서 서울시는 학생공모전의 공모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지속적인 학생공모전 시행으로 마을 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둘째, 다양한 사업방식(모델)에 대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셋째,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 만들기)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넷째,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확대 보급에 기여 등 네 가지 방향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학생공모전을 진행했다(서울특별시, 2015).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은 2009년 ‘제 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을 시작으로 2017년 ‘제 8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까지 9년간 총 8회에 걸쳐 시행됐다. 2011년에는 서울시 정책과정의 새로운 변화과정에서 공모전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층주거지 재생의 중요성을 인정해 공모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매년 초 언론보도와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로 시작해 연말 시상식까지 진행되는 형식으로 매년 이슈에 맞춰 공모전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를 거듭하여 학생공모전이 진행되면서 학생 참가자의 시점에서 선정 대상지가 고갈되어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서울시 저층주거지 대상 마을 만들기의 정책적 수요에 따른 필요 대상지 인식이 어려워 7회부터는 사전 검토 후 일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지정대상지를 제시하는 등 공모전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종합하면 서울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을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이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에 기존의 사업방식과 더불어 학생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발전방향과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방식을 얻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이다. 갈수록 사라지는 소중한 서울의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자 개최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현재 서울의 저층주거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해답의 하나로 공모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 참가학생 등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저층주거지의 보존을 위한 관심을 얻고자 개최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저층주거지 예비전문가를 발굴하며 사라지고 있는

서울의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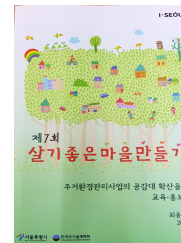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는 논문검색포털사이트 RISS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공모전, 학생공모전, 일반공모전, 마을 만들기, 발전방향,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검색하여 진행하였다.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상훈(2013)은 성북구 정릉1동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관련 이론고찰, 도시 아카데미의 교육과정과 결과물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교육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진행을 했다. 연구 결과, 마을 만들기는 단기적으로 완성해내는 일회성 행정정책이 아니라 천천히 지속

〈표 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역대 포스터

역대 학생공모전 포스터 1~8회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표 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시행사항 개요

년도 (회차)	공모전 명칭	목 표	수 행 기 간	추진 경위	
2009 (제1회)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에 맞춰 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009.03.19. ~ 2009.09.30.	2009.03.19.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09.06.08.~10.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2009.09.30. 시상식 및 전시	
2010 (제2회)	서울시 휴먼타운 학생공모전	단독주택지 보존과 공동체 형성 등으로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에 일조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 휴먼타운 시범사업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	2010.06.10. ~ 2010.12.09.	2010.06.10.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0.07. 학생공모전 안내 및 홍보	
				2010.11.08.~10.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2010.11.29.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0.12.09. 시상식 및 전시	
2011			(미 시 행)		
2012 (제3회)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단독주택지 보존과 공동체 회복으로 서울의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	2012.02.23. ~ 2012.09.21.	2012.02.23. 제 3회'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2012.04.27.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2.08.13.~14.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2012.08.30.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2.09.21. 시상식 및 전시					
2013 (제4회)			2013.02.21. ~ 2013.10.19.	2013.02.21. 제 4회'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2013.04.04.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3.08.29~30.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2013.09.13.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3.10.18. 시상식	
2014 (제5회)			2014.01.23. ~ 2014.10.29.	2013.10.12.~19. 학생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14.01.23. 제 5회'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2014.03.28.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4.08.28.~29.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2014.09.22.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5 (제6회)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	2015.01.22. ~ 2015.11.22.	2014.10.27. 시상식
					2014.10.20.~29. 학생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15.01.22. 제 6회'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2015.04.03.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5.08.27.~28. 학생공모전 작품접수
	2018.09.14. 심사계획(안) 보고				
	2015.09.21.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6 (제7회)	단독(다세대) 주택지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지역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	2016.04.14. ~ 2016.11.22.	2015.10.19.~25. 학생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15.11.12. 시상식		
			2016.04.14.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6.08.25.~26. 학생공모전 작품접수		
			2016.09.08.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2017 (제8회)	2017.02.02. ~ 2017.11.06.	2016.10.17.~28. 학생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16.11.22. 시상식	
				2017.02.02. 제 8회'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2017.03.17.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2017.08.24.~25. 학생공모전 작품접수	
				2017.09.11. 마을 만들기 부문 심사	
				2017.09.15.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 심사	
				2017.10.19.~31. 학생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2017.11.06. 시상식	

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지역사회운동이라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연구한 이은진(2006)은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계기부터 공동체 형성의 과정과 마을 만들기가 정착되어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했다. 주민 간 공동체형성을 이루면 정착률은 높아질 것이며,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의 공동체활동을 유지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공모전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는 시행현황을 정리한 연구와,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발전방향을 찾는 연구, 공모전의 시행효과로 나뉘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주로 디자인 공모전과 건축공모전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모전 시행현황 관련 연구로 김준연(2013)은 디자인 공모전의 현황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디자인공모전과 해외 디자인공모전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디자인 공모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공모전 참여를 준비하는 일반인, 학생, 전문 디자이너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디자인 정책 연구와 디자인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분석·제공했다.

민경석(2016)은 공모전의 현황을 분석했다.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으로 본 건축공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국내 건축 일반,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환경 분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학술발표대회, 경진대회와 공모전 현황을 분석해 건축공학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모전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4가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모전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 정양승(2009)은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계경기 프로그램의 선진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설계경기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밝히고 플래닝 기법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전략 요소를 도출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나리오 세 개를 작성하는 데 그쳤으며, 일반적인 수많은 상황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공모전 결과를 토대로 결과분석 연구를 진행한 이연숙(2016)은 공모전 수상작 사례를 분석해 지원주택의 공간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건축가협회(AIA)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환경사례 중 지원주택 사례로, 지원주택이 처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 지원주택을 분석하였다. 국내 지원주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 지원주택의 도입에 필요성을 밝혔다.

공모전 시행효과를 조사한 연구로 송운애(2008)는 기업이 시행하는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 기업의 인지도와 기업이미지, 기업에 대한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대응표본 t-test,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 단순회귀 분석으로 처리하여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 기업의 인지도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민간기업과, 공기업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김일철(2002)은 공모전에 참여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척도의 개발·분석기법을 활용해 2000년 이후 전국 일간지에 실린 인쇄광고 텍스트와 비슷한 기간에 입상한 각종 광고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공모전 입상 광고에서 모두 높은 효과

〈표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연구 내용	한계점 및 시사점
마을 만들기 발전을 위한연구	이은진, 2006	마을 만들기의 시작부터 마을 만들기의 정착방향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상훈, 2013	성북구 정릉1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을 만들기 관련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를 토대로 마을 만들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천천히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
공모전 시행현황 분석연구	김준연, 2013	국내, 국외 사례를 SPSS(Ver.21.0)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 국내의 공모전의 개최 시기와 기간, 대상, 출품규격 등의 일반적인 현황의 평균을 제시함.	국내 공모전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못함. 기존 연구가 단순 특정 분야의 공모전을 갖고 진행한 것에 비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의 모든 현황을 파악함.
	민경석, 2016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발표대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 현황분석으로 우리나라 건축공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	조사한 대학생의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공모전의 문제점 & 발전방향 도출연구	정양승, 2009	국내 설계경기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플래닝 기법을 활용한 해결방안 도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축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전략적 요소를 도출	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의 결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새로운 인자들을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추후 요구됨.
	이연숙, 2016	미국건축가협회(AIA)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환경사례 중 지원주택 사례로, 지원주택이 처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 지원주택의 사례분석 공간디자인 특성에 따른 5가지의 결과, 공간구성특성에 따른 2가지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주택의 개발에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함.	해당 사례를 방문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는 못했음. 지원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라는 지원주택의 통합적인 기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의문
공모전 시행효과 연구	송운애, 2008	수집한 정보로 대응표본 t-test,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 단순회귀 분석 시행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 그리고 행동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 도출	조사대상자가 각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와 태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함. 기업선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각각 한 기업만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보기에는 어려움.
	김일철, 2002	2000년 이후 전국 주요일간지에 집행된 인쇄광고 텍스트와 같은 기간 입상한 각종 광고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적도의 개발·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 공모전광고는 일반광고보다 정서적 요인과 매력적 요인 등 모든 연구과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며, 비교적 공모전광고에서 일반광고보다 높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실험광고물을 인쇄광고에 국한시킨 점으로 볼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심사기준 현황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기에 측정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제약요인이 작용

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만 피험자 집단으로 설정한 것과, 실험광고를 인쇄광고에 국한지은 것은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 검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공모전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는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공모전을 분석했는지 검토했다. 그다음으로 마을 만들기는 점진적 운동으로 서서히 확산될 필요가 있고,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했다.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선행연구의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재 국내 공모전을 분석한 연구는 공모전의 발전을 위하여 진행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다수가 수상작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국내외 단순 비교를 수행해 공모전의 효과를 분석했다. 선행연구로 분석한 연구는 연구대상인 공모전 자료의 전수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민간공모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공모전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공모전 결과와 수상작 위주로 분석을 진행해 공모전의 일부만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효과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3~8회의 출품작품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해 다른 연구보다 자료의 구축범위를 차별화하였다. 출품작품 전수 조사로 누락 없이 작품의 세부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른 점이다. 둘째, 시행주체의 차별성이 다르다. 공모전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지자

체라는 점에서 공모전 주관에 차별점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정량 연구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된 연구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연구는 분석의 틀을 작성하고 정량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Ⅲ. 분석의 틀과 학생공모전 분석

1. 분석의 틀

학생공모전 분석을 위해 먼저 공모전 시행 전후 전 과정 시 분석 참여자 측면에서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여 <표 4>와 같이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첫째,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은 시행과정 동안의 참가자 수, 참가자 폭 등의 확대로 마을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한다. 둘째, 공모전 대상지 특성분석은 학생공모전의 대상지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어떠한 곳이 대상지가 되는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셋째, 공모전 출품작품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마을 만들기의 어떠한 기법을 적용했고, 기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을 만들기 기법의 발전 차원에서 분석한다. 넷째, 공모전 성과분석은 참가자에게 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다.

첫째, 참가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출품작 접수총인원과 팀원 수의 빈도와 비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작품 참여인원 수 분석이다. 그리고 출품작 참여대학별 현황 파악을 위해 참여 대학명을 분석한다. 출품작 참여 대학 출품자 전공별 현황 파악을 위해 참여 학과명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출품작 참여대학의 소

속지역을 파악하는 참여대학 지역구분 분석을 시행한다. 네 가지 분석은 연도별 빈도수 변화를 토대로 참여인원, 참여 학과, 출품자 전공별 현황, 참여대학 지역 소재를 전년 대비 비율로 분석하여 진행한다.

둘째, 공모전의 대상지 특성분석을 위해서 출품작 대상지의 위치를 파악하여 각 구, 행정 동 의 비율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어느 지역이 대상지로 많이 선정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서울시내 자치구의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공모전 작품특성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일

반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시한 세부사업을 크게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는 출품작 제안 내용 중 어떠한 계획안 내용이 들어있는지 분석했다. 참가자가 제안한 물리적 측면의 사업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파악하여 참가자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개선 시 우선하는 개선안의 항목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리적 측면의 내용에는 주택건물정비, 주택외부 공간, 기반시설(도로), 기반시설(공원), 마을공동시설, 기반시설(기타), 경관개선(벽화), 경관

〈표 4〉 분석의 틀

분석항목	세부 분석항목		분석 내용
1. 참가자 특성분석	작품 참여인원 수		출품작 접수총인원, 팀원 수(1~5인) 빈도와 비율을 파악
	참여 대학명		출품작 참여대학별 현황 파악
	참여 학과명		출품작 참여대학 출품자 전공별 현황 파악
	참여대학 지역구분		출품작 참여대학의 소속지역(서울, 수도권, 지방) 파악
2. 대상지 분석	대상지위치		출품작 대상지(서울시내 자치구)의 현황 파악
3. 출품작 내 제안사업 분석	물리적 측면	주택건물정비	출품작 내용 중 주택정비(건축물)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주택외부공간	출품작 내용 중 주택정비(외부공간)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기반시설(도로)	출품작 내용 중 기반시설(도로)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기반시설(공원)	출품작 내용 중 기반시설(공원)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마을공동시설	출품작 내용 중 마을공동시설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기반시설(기타)	출품작 내용 중 기반시설(기타)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경관개선(벽화)	출품작 내용 중 경관개선(벽화)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경관개선(식재)	출품작 내용 중 경관개선(식재)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경관개선(가로장식물)	출품작 내용 중 경관개선(가로장식물)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경관개선(기타)	출품작 내용 중 경관개선(기타)에 관한 계획내용 포함 빈도
	경제적 측면	주민자력	출품작 내용 중 주민자력을 통한 경제계획내용 포함 빈도
		기업 사회공헌	출품작 내용 중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경제계획내용 포함 빈도
		공공지원	출품작 내용 중 공공지원을 통한 경제계획내용 포함 빈도
		기 타	출품작 내용 중 기타방식을 통한 경제계획내용 포함 빈도
	사회· 문화적 측면	마을정체성 강화	출품작 내용 중 마을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 포함 빈도
		범죄예방	출품작 내용 중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내용 포함 빈도
		취약계층복지	출품작 내용 중 취약계층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내용 포함 빈도
		기 타	출품작 내용 중 기타 방법을 통한 사회·문화적 내용 포함 빈도
4. 성과 분석	수상작품 수		수상작품 수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와 겹치는 부분		출품작 전수 대상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겹치는 대상지 분석

개선(식재), 경관개선(가로장식물), 경관개선(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분석은 출품작품이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방안을 고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다. 작품에서 제시한 경제적 측면 중 어느 항목이 가장 빈도가 높은지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의 항목은 주민자력, 기업 사회공헌, 공공지원,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사회·문화적 측면(프로그램)은 출품작의 계획안 중에서 사회·문화적 측면(프로그램)의 빈도를 파악하고자 진행한다. 사회·문화적 측면(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마을 만들기 시행 시 마을정체성 강화, 범죄예방, 취약계층의 복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다. 분석 항목은 마을정체성강화, 범죄예방, 취약계층복지, 기타로 구분된다.

넷째, 공모전 성과는 수상작 개수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로 분석한다. 먼저 수상작 개수는 그동안 입장작품의 수를 토대로 공모전이 발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자와 접치는 부분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대상지와 중복되는지 파악하는 항목이며, 학생공모전 결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공모전이 단순 공모전에서 끝나는지 혹은 공모전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어 저층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참가자특성 분석부터 결과분석까지, 그리고 공모전 시행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여 6년간 공모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3~8회)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은 세 가지의 분석을 진행해 3~8회간 공모전 참가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5〉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 및 참여인원 현황

	2012 3회	2013 4회	2014 5회	2015 6회	2016 7회	2017 8회	합계
출품작 (개)	70	91	64	37	45	46	333개
작품증감 비율 (%)	0	30	-30	-42	21	2.2	
총인원 (인)	215	306	181	137	169	179	1,187 인
인원증감 비율 (%)	0	42	-41	-24	23	5.9	

※ 2016(7회)년은 마을 만들기와 대안주택 공모전이 같이 진행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자료만 분석하였음

※ 증감비율은 [(현재빈도-전년빈도)/전년빈도]*100을 산정한 값

1) 참가자와 참가작품 특성

출품 작품 수는 최소 37개(6회)에서 최대 91개(4회)로 조사됐다. 2013년(4회)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2014년(5회)은 30% 감소, 2015년(6회)은 42% 감소하였다. 반면 2016년(7회)은 21%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증가 추세는 2017년(8회)까지 나타났다. 참여인원은 최소 137명(6회)에서 최대 306명(4회)으로 확인됐다. 2013년(4회)과 2016년(7회)은 각각 전년보다 42%, 23% 증가하였다. 2017년(8회)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9%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2014년(5회)과 2015년(6회)에는 2013년(4회)에 견줘 각 40%, 55%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4회)까지 공모전 출품작 수와 참가인원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4년(5회)을 기준으로 출

〈표 6〉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참가대학 지역 소재 현황

	2012(3회)		2013(4회)		2014(5회)		2015(6회)		2016(7회)		2017(8회)		합계
서울	38개	54%	56개	61%	42개	65%	14개	37%	26개	57%	22개	48%	198개 56%
서울증감	0		7.3%		4%		-27.8%		18.7%		-8.7%		
수도권	24개	34%	30개	33%	19개	29%	23개	62%	11개	24%	17개	37%	124개 35%
수도권증감	0		-1.3%		-3.3%		32.5%		-38.2%		13.0%		
지방	8개	11%	5개	5%	3개	4%	0개	0%	9개	20%	7개	15%	32개 9%
지방증감	0		-5.9%		-0.8%		-4.7%		19.6%		-4.3%		
합계	70개		91개		64개		37개		46개		46개		354

※ 증감비율은 (현재빈도 비율-전년빈도 비율)을 산정한 값임

품작 수와 참가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에 들어서면서 출품작과 참가인원이 다시 전년 대비 20%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여건변화로 정비사업, 재정비촉진 지구가 해제되는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마을 만들기 방식과 소규모 자력개발 등 대안적 방식의 필요성 확대 등이 참여 동기 부여로 이어져 참여동기가 강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간 누적된 마을 만들기 공모전 경험이 도시재생 확대라는 정책 추진과 연계되어 공모전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7회(2016)부터는 더 높아진 주거환경 관련 삶의 질 요구에 대응하여 마을 만들기 방식의 현실적 적용 확대를 감안하고 대안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분 등 부문을 확대하는 등 공모방식이 변화된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참여대학 소재지 분석

3~8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학생공모전 참여 대학 소재지는 서울 198번, 수도권 124번, 지방 32번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참여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서울소재 대학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50%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평균 참여율은 31.7%였고, 2015년(6회)에 62.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지방대학의 참여는 2012년(3회)를 기점으로 2015년(6회)까지 감소하였지만 2016년과 2017년에 들어서면서 15% 이상을 기록하며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반적인 대규모 정비방식에 의존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외에 마을 만들기 방식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등 전국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는 등 관심의 확대를 반영하여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보이는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간접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참여 학과 변화

2012년 공모전 참여 학과는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3개의 계열에서 참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5개의 계열, 96개의 참여 학과로 다양한 학과가 참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학과가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공학계열뿐 아니라 기타의 미술교육학, 불어불문, 경영계열 정치외교, 디자인계열 플라워 디자인 등도 참여하였다.

〈표 7〉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참여 학과현황

	2012 3회	2013 4회	2014 5회	2015 6회	2016 7회	2017 8회
계열	빈도					
건축	35	31	20	7	22	26
도시 부동산	31	48	32	22	17	15
조경	4	10	5	3	1	3
디자인	-	4	6	6	11	12
기타	-	3	2	5	3	3
합계	70	96	65	43	54	59

건축(건축, 건축계획, 공간환경시스템공학 등)
도시부동산(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교통, 부동산 등)
조경(조경, 환경과학, 환경조경, 원예생명조경 등)
디자인(미디어디자인,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기타(미술교육학, 경영, 공공인재 등)
※ 참여학과 계열 산정은 세부전공을 통해 분류함

이는 마을 만들기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건축·도시·부동산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전공의 학과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저변이 넓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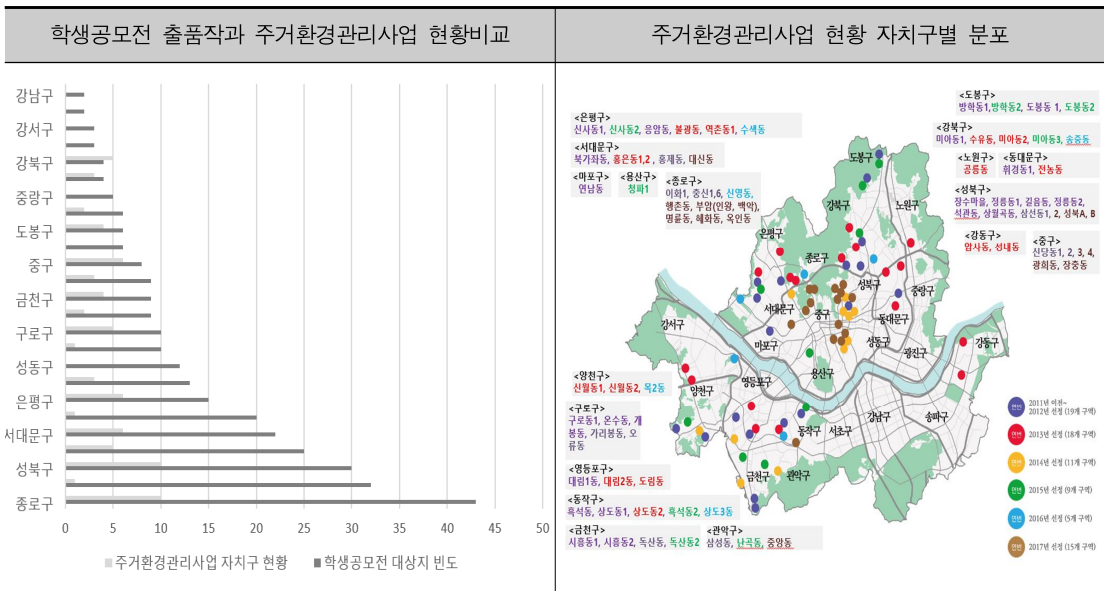
3. 공모전 대상지 특성분석(3~8회)

공모전 대상지의 주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지 특성분석을 진행했다. 자치구 변화와 행정동 변화를 분석해 실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와 시급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1) 대상지(자치구)변화

학생공모전 대상지는 출품작품 수에 따라 연도별로 최소 11곳(8회)에서 최대 21곳(4회)까지 출품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공모전 대상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소 2번(강남구, 서초구)에서 최대 43번(종로구)까지 모든 자치구가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나, 대상지 선정 빈도차이는 큰 편으로 나타난다. 대상지 선정 빈도 상위 7개(최소 15번에서 최대 43번) 자치구의 변화를 보면 7회 전에는 종로구·마포구·성북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작구·용산구·서대문구는 전년 대비

〈표 8〉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비교 및 現주거환경관리사업 자치구별 분포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3개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지정공모제(7회)를 하고 나서는 종로구·성북구·서대문구·은평구·관악구가 지정공모제의 효과를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재생수요가 낮은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 고루 분포했다. 강남 3개구보다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종로구·마포구·성북구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참가자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앞서 경험한 선배의 조언과 자료구득 용이성, 당선용이성, 방문과 주민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해 저층주거지 재생이라는 공모전의 취지를 살리려고 나타난 경향으로 짐작된다.

2) 대상지(행정동) 중복 현황

3~8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공모전 대상지(행정동) 중 40개 동이 중복 출품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 28번, 종로구 26번, 은평구 10번, 관악구 16번, 마포구 15번순으로 중복된 결과를 나타냈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지정공모제(7회)를 시행하기 전에는 중복된 행정동이 골고루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 이는 대부분 기존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상지이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상지의 인근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제7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기점으로 지정공모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정공모제 시행 이후 관악구 중앙동과 성북구 동소문동이 각각 7개씩 중복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 참가학생의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받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정공모제는 참가학생에게는 공모전 대상지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지

〈표 9〉 3~7회(5개년)간 대상지 행정동 중복 현황(빈도)

자치구	행정동	중복횟수	
구로구	가리봉동	2	4
	오류2동	2	
금천구	독산4동	3	3
노원구	공릉동	2	2
동대문구	청량리동	2	2
동작구	본동	2	10
	흑석동	3	
		5	
마포구	노고산동	2	15
	동교동	2	
	서교동	3	
	연남동	8	
서대문구	봉원동	2	11
	홍은1동	4	
	북가좌동	5	
서초구	방배동	2	2
성동구	금호4가동	4	10
	금호동	3	
	사근동	3	
성북구	삼선동	4	28
	삼선동1가	3	
	성북2동	2	
	정릉동	2	
	동소문동	7	
	성북동	10	
용산구	서계동	3	8
	용산2가동	3	
	청파1동	2	
은평구	불광동	2	10
	수색동	2	
	신사2동	6	
종로구	익선동	5	26
	창신2동	2	
	창신동	2	
		5	
	체부동	3	
	충신동	2	
	행촌동	3	
	신영동	4	
강북구	미아동	3	3
관악구	중앙동	16	16
양천구	목2동	4	4

를 선택하는 고민의 시간을 덜어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행정동 중복현황 분석 결과, 지정공모제 도입 전에는 중복된 대상지의 대부분이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와 일치하거나 주변을 선택하여 진행했다. 하지만 2016년 지정공모제 도입 후 기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와 다른 대상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공모제를 실시하여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3~8회 공모전 출품작품의 제안사업 특성분석

공모전 출품작품의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출품된 작품의 판넬과 작품설명서를 가지고 진행했다.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작품의 질적 내용과 출품작이 중요시하는 제안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 물리적 측면 변화분석

3~8회 동안 제출된 공모전 물리적 측면의 계획안은 총 353개의 출품작에서 중복포함 1,481개를 제시했다. 우선순위로 보면 경관개선(식재)이 가장 많은 연도에서 빈도수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마을공동시설 순이었다. 가장 낮은 기록을 한 순위는 주택건물 정비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2015년까지는 경관개선(식재)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비교적 다른 물리적 개선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마을공동시설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올라섰고, 2016년부터는 가장 많은 계획안으로 꼽혔다. 이는 마을을 정비하는 데 기존의 간단한 물리적 계획이 아닌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외부 공간과 기반시설(공원) 또한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주택외부 공간은 노후 주택의 담벼락을 허물거나 담벼락 정리를 진행한

〈표 10〉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품 물리적 측면 전체 계획안

	주택 건물 정비	주택 외부 공간	기반 시설 (도로)	기반 시설 (공원)	마을 공동 시설	기반 시설 (기타)	경관 개선 (벽화)	경관 개선 (식재)	경관 개선 (가로 장식물)	경관 개선 (기타)	합계
2012년	16 5.3%	39(○) 12.8%	40(◎) 13.6%	36 11.8%	33 11.9%	35 11.5%	16 5.3%	46(●) 15.1%	27 8.9%	16 5.3%	304
2013년	20 6.2%	46(◎) 14.2%	24 7.4%	54(●) 16.7%	34 10.5%	39(○) 12.1%	23 7.1%	39(○) 12.1%	31 9.6%	13 4.0%	323
2014년	18 6.5%	32(○) 11.6%	16 5.8%	36(◎) 13.1%	28 10.2%	30 10.9%	28 10.2%	43(●) 15.6%	23 8.4%	21 7.6%	275
2015년	9 5.4%	23(◎) 13.7%	17 10.1%	17 10.1%	23(◎) 13.7%	5 3.0%	19 11.3%	24(●) 14.3%	13 7.7%	18 10.7%	168
2016년	16 8.1%	13 6.6%	23 11.6%	29(◎) 14.6%	31(●) 15.7%	26(○) 13.1%	11 5.6%	10 5.1%	23 11.6%	16 8.1%	198
2017년	21 9.6%	20 9.4%	29(○) 13.6%	31(◎) 14.6%	38(●) 17.8%	26 12.2%	9 4.2%	21 9.6%	9 4.2%	9 4.2%	213
											1481

※ 각 연도 우선순위 빈도표시 1위=●, 2위=◎, 3위=○

다는 의견이 많았고, 외부에 비취지는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 노력이 많이 보였다. 기반시설(공원)은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맹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조성을 다룬 내용이 많았다. 이는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의 녹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물리적 측면의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공모전 초기에는 우선순위로 비교적 다른 물리적 사업보다 간단하고 소규모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안이 높은 빈도를 기록했지만, 2015년부터는 공동체 회복을 우선시하는 마을공동시설 계획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간단한 마을환경의 개선이 아닌 공동체 회복으로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변화분석

3~8회 동안 제출된 공모전 경제적 측면의 계획안은 총 353개의 출품작에서 중복 포함 373개를

제시했다. 우선순위로 보면 주민자력이 가장 많은 연도에서 빈도수 1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으로 공공지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은 매년 비슷한 우선순위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주민자력이 들어있는 판넬을 분석한 결과, 카페·공부방·도서관 등을 조성해 주민 주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즉, 주민자력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다음은 공공지원이 많았다. 초기 주민을 모아주는 역할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기 자본을 주민이 마련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공공의 지원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그 후 지역주민의 자생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변화분석

3~8회 동안 제출된 공모전 출품작품의 사회·

〈표 11〉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품 전체 경제적 측면 계획안

	주민 자력	기업 사회공헌	공공 지원	기타	합계
2012년	29(●) 50%	5 8.6%	17(○) 29.3%	7 12.1%	58
2013년	41(●) 46.6%	8 9.1%	19 21.6%	20(○) 22.7%	88
2014년	42(●) 58.3%	4 5.6%	20(○) 27.8%	6 8.3%	72
2015년	26(●) 66.7%	2 5.1%	8(○) 20.5%	3 7.7%	39
2016년	29(●) 45.3%	11 17.2%	24(○) 37.5%	0 0%	64
2017년	29(○) 55.8%	2 3.8%	19(○) 36.5%	2 3.8%	52
					373

※ 각 연도 우선순위 빈도표시 1위=●, 2위=○

〈표 12〉 3~8회(6개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품 사회·문화적 측면 전체 계획안

	마을 정체성 강화	범죄 예방	취약 계층 복지	기타	합계
2012년	27(●) 29.3%	15 16.3%	24 26.1%	26(○) 28.3%	92
2013년	26(○) 25.5%	29(●) 28.4%	21 20.6%	26(○) 25.5%	102
2014년	26(○) 29.2%	27(●) 30.3%	19 21.3%	17 19.1%	89
2015년	10 17.9%	16(○) 28.6%	6 10.7%	24(●) 42.9%	56
2016년	25(●) 36.8%	25(●) 36.8%	12 17.6%	6 8.8%	68
2017년	13 22.8%	29(●) 50.9%	14(○) 24.6%	1 1.8%	57

※ 각 연도 우선순위 빈도표시 1위=●, 2위=○

〈표 13〉 3~8회(67년)간 학생공모전 출품작품 제안사업 특성 변화

	2012 3회	2013 4회	2014 5회	2015 6회	2016 7회	2017 8회	합계
출품작 수	70개	91개	64개	37개	45개	46개	353개
물리적 측면	304개 66.9%	323개 62.9%	275개 63.1%	168개 63.9%	198개 60%	213개 66.1%	1481개
경제적 측면	58개 12.8%	88개 17.1%	72개 16.5%	39개 14.8%	64개 19.4%	52개 16.1%	373개
사회문화적 측면	92개 20.2%	102개 19.9%	89개 20.4%	56개 21.3%	68개 20.6%	57개 17.7%	464개
제안한 사업 수	454개	513개	436개	263개	330개	322개	228개
작품당 제안사업 수 비율	6.49	5.64	6.81	7.11	7.33	7.00	

※ 작품당 제안사업 수 비율은 출품작 수/제안한 사업 수
합계로 출품작 대비 계획안 제시 건수를 산정

문화적 측면의 계획안은 총 353개의 출품작에서 중복 포함 464개를 제시했다. 우선순위로 보면 범죄예방이 가장 많은 연도에서 빈도수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마을정체성 강화였다.

사회·문화적 측면도 우선순위가 매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저층주거지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방법벨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마을정체성 강화가 많았다. 마을정체성 강화는 대상지 마을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주를 이루었으며, 공동체 형성으로 마을을 사랑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재생으로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계획안은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안전성을 높여 주민이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는 공모전 출품작들이 현재는 마을의 정체성이 약하며 범죄예방에 아직 취약하다고 판단했기에 계획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4) 출품작품 제안사업 변화 종합

3~8회 동안 제출된 공모전 계획안은 총 353개의 출품작에서 중복 포함 물리적 측면 1,481개, 경제적 측면 373개, 사회·문화적 측면 464개로 총 2,298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비율로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출품작 수 대비 계획안 제시 상대비율을 보면 2014년(5회), 2015년(6회)은 작품 수가 줄어들었어도 상대비율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2016년(7회)에는 전년 대비 작품 수가 늘어났지만 계획안 수도 증가해 계획안 제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한 개의 출품작에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모전의 결과가 누적되면서 참가자가 선행 작품을 참고하여 더 진전된 고민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5. 공모전 성과분석

그간 진행한 공모전의 성과를 알아보는 공모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 공모전 성과분석은 1~8회 수상작품 개수 분석과 3~8회 작품 전수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겹치는 대상지 분석을 진행한다. 공모전이 단순 경진대회로 마무리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공모전 수상작 개수

3~8회 공모전동안 353개의 출품작에서 96개의 수상작이 나왔다. 2015년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표 14〉 3~8회 공모전 입상작 수

	2012 3회	2013 4회	2014 5회	2015 6회	2016 7회	2017 8회
대상	1	1	1	1	1	1
금상	2	2	2	2	2	2
은상	4	4	4	3	8	6
동상	13	13	13	8	1	1

※ 2016년부터 대상→최우수상, 금상→우수상, 은상→장려상,
동상→삭제, 한국도시설계학회 특별상 신설

〈표 15〉 3~8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발전된 작품

공모전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발전된 작품		
작품 년도	작품명	구역명
2012	이웃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개봉3동 이야기	구로구 개봉3동
2012	들숨날숨 성대골 마을 만들기	동작구 상도3동
2013	삼3선 6구역의 9가지 이야기	성북구 삼선동
2014	일곱빛깔 홍 마 루	서대문구 홍제3동
2015	푸른언덕 청파 주민을 Zoom in	용산구 청파1,2동
2015	흑석동 청춘 발전소	동작구 흑석동
2016	길따라 만나요, 신영동	종로구 신영동
	신통방통	
	월담: 담을 넘다	
	신영동 '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너나들이 중앙동	관악구 중앙동 (7회 지정공모대상지)
	우리 중앙이가 달라졌어요	
	소통의 골목, 중앙동을 걷다	
	매일매일 즐거운 우리동네 너랑나랑이랑	
	너랑 나랑 가운누리랑	
	Go 郷 : 서울에서 고향찾기	

16

수여했지만 2016년부터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한
국도시설계학회 특별상으로 상명이 변경되었다.

이는 공모전 진행 시 수상작품의 개수를 삭감
하여 출품작의 질적 수준과 공모전 수준을 향상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와 겹치는 부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은 서울시가 주
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해 우수 작품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와 겹
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3~8회에 출품된 작품 전
수를 검토하였다. 2017년 7월 77개 구역에서 시행하
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관
리사업 대상지에 출품한 작품의 수와 주거환경관리사
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 작품의 수를 파악하였다. 주
거환경관리사업지 내 출품된 작품은 총 38개였고, 공
모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발전된 작품은
16개로 파악되었다.

〈표 16〉 3~8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와 겹치는 부분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내 대상작품		
작품 년도	작품명	구역명
2012	이웃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개봉3동 이야기	구로구 개봉3동
	비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양천구 신월1동
	밤정 쌓이는 밤풀길	성북구 삼선동
	시가 흐르는 명륜에서 누리다	종로구 명륜3동
	햇별은 쨍쨍 충신동은 반짝	종로구 충신동
	성북동의 웃음이 흐르는 호석정	성북구 성북2동
	0세부터 100세까지 더불어 살아가길	종로구 명륜3가동
2013	도시의 기억	성북구 삼선동
	흑석동에 앉은 파랑새	동작구 흑석1동
	까만돌 흑석, 보석 만들기	동작구 흑석동
	아.나.바.다. 평평길 걷기	성북구 삼선동
	구석구석 커뮤니티	정리그 행촌동
	흑석, 마음에 품다	동작구 흑석동
	행촌, 행복에 물들다. 행촌동 서울성과 마을 만들기	종로구 행촌동
	힐링캠프	마포구 연남동
	잠자는 연남동에 예술의 숨결을	마포구 연남동
	도봉산 아래 정겨운 마을, 안골에 살아리랏다	도봉구 도봉동
2014	명륜3가 눈으로 거닐다	종로구 명륜3가
	山토리니 마을	서대문구 홍은1동
	Go! Green Guro 오류 2동, 함께 심는 텃밭마을	구로구 오류2동
	복적복적 메주익는 북정마을	성북구 성북동
	행촌에 취하다	종로구 사직로2길
2014	구석에서 찾아낸 보석 흑석	동작구 흑석동
	가리봉동 경계 허물기 프로젝트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2동
	수색보배만들기	은평구 수색동
	충신동, 상생의 꽃이 피었습니다	종로구 충신동
	사람과 행복을 잇는 "조각보마을"	종로구 충신동
	주민들이 손수 색을 칠하다!	은평구 수색동
	주홍빛 행복 가득한 오류2동	구로구 오류2동 응골마을
2015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손에 손을 잡은 마을 만들기	은평구 응암3동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2동
	언덕 위 푸른 유산 청파1가	용산구 청파1가
2016	정원단지 프로젝트	서대문구 홍은동
	잔잔한 가재울, 세대를 회류하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봉봉한 봉원마을	서대문구 봉원사길
2017	만월을 찾아서 : 목2동 달무리 마을	양천구 목2동 (8회 지정공모대상지)
	난쟁이 모기동 마을	
	목동이 화합하는 동네, 목화동	
	우리 마을은 나누며 사는 녹색마을	
합계	38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제출된 작품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품을 제출하거나 서울시에서 지정공모제로 대상지를 지정하여 해당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에 적용할 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모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발전한 작품을 분석한 결과, 공모전 지정공모제로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공모전 대상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이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모든 지정공모제가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결과다. 학생공모전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우수 작품을 제출한 팀에 학생기초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학생들이 저층주거지 전문가가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학생공모전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해 저층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고, 미래의 저층주거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IV. 학생공모전 분석종합과 발전방향

1. 학생공모전 시행 종합분석

1) 참여 학생 변화 추이 분석종합

2009년 처음 시행한 제 1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새롭게 전개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향적 내용으로 학생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많은 출품작 수를 보였다. 그러나 시행 연차가 거듭될수록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작품의 내용과 다루는 세부사업은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높아지는 작품의 질적 향상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데 비롯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참가자의 질적 부담 상승과 동시에 공모작을 출품할 만한 대상지의 한계, 동일 대상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중복 출품으로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서울시 마을 만들기(저층주거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견주어 보았을 때 매년 개최되는 학생공모전의 아이디어와 대상지 고갈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모전 공고(통상 연초)이후 자발적으로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접수하는 데 통상 3월부터 8월경까지 5개월(약 반 년) 이상 소요된다.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을 매진하여 작품을 완성시켜야 하는 소요시간에 비해 참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수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다. 실제 학기 초 공모전 참가 의지를 지속하기는 한계가 있어 상당수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 대학에서 해당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 참여도를 유지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전 참여주체가 속한 학과의 수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모전 대상지 이해도가 높은 구청의 참여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참여대학의 소속 학과 변화 분석

2009년 제 1회 학생공모전 당시 참여 학과는 마을 만들기의 저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도가 높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또는 도시 분야

를 중심으로 편제된 학과 소속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마을 만들기 형식의 주거지 유지 보전형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계획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점차 건축·도시 전공 외에 인접 전공까지 참여가 늘어났다. 3~7회 참가학과 현황을 보면 조경 관련 학과부터 디자인, 미디어, 경영, 관광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참여 학과의 다양성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이 물리적 개선사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종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참여대학의 소재 지역의 변화 분석

학생공모전 참여대학 소재 비율은 제 1회 학생공모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 형식의 유지관리형 주거지 계획방식의 저변이 넓지 않아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최하는 학생공모전인 관계로 출품작을 제출하는 학교가 서울시내 소재 대학이거나, 도시·건축학 전공이 포함된 수도권 소재의 일부대학으로 참여대학 폭이 넓지 않았던 것도 한계점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외 소재 대학 학생은 대상지 방문과 현황파악, 주민 인터뷰 등 작품제작 과정에서 접근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유지관리형 주거지계획의 아이디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격상 대상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나 지방소재 대학생의 접근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한 것은 참여 여건 조성에 따라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의 참여여건 조성을 위해 참가학생의 의지에만 국한된 참가 방식에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당해 대학 학과와 사전 협의를 적극 진행하는 등 능동적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대상지(자치구) 변화 분석

학생공모전의 출품작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수요가 낮은 강남지역 3개 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자치구에 빈도가 집중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참가에 따른 작품의 수량 수월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이슈가 명확한 지역을 선택하여 참가함에 따라 지역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당수의 자치구 저층주거지가 소외되는 특성 또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치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학생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고 사전 대상지를 소개하는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내 자치구의 다양한 저층주거지가 학생공모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 공모전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지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저층주거지의 특징적 문제의 해법을 다룰 수 있는 대상지 선정 방안을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업 관계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지금까지의 출품작 빈도와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향적인 선정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제안사업 변화 분석

공모전 계획안은 이 연구에서 분류한 분석항목(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경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총 2,298개의 아이디어 중 물리적 측면(1,481개), 경제적 측면(373개), 사회·문화적 측면(464개)의 순으로 확인돼 해당 구성 비율구성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차별 공모전 참가 작품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단일 작품 내 계획내용과 아이디어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품에서 제안한 사업 수가 높아진 것은 작품구성의 질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생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품의 질을 계속 높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공모전의 규모를 늘려 참가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6) 공모전 출품작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중인 대상지와의 연계성

3~8회까지 진행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의 출품작 전수분석 결과, 출품작의 대상지가 실제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된 곳은 51곳으로 확인됐다. 출품작 개수가 353개인 것을 감안하면 16.6%라는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 당시 학생공모전 제안으로 진행한 대상지는 6곳으로 파악되었다. 공모출품작의 내용이 우수해 실제 사업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출품작 수준이 높고,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모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공모전이 저층주거지 청년재생활동이 발굴의 장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모전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며, 공모전 참여 학생들에게 청년재생활동가라는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발전방향

1)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공모전이 끝난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모전 초기에는 높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는 출품작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시가 공모전의 열기를 지속하려면 공모전이 끝난 시점에서 당해 결과를 분석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매년 공모전이 끝난 직후 결과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유 공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여 온 것이 사실이나, 6회까지 진행되자 대상지의 중복현상과 작품내용의 차별성 저하 등의 한계가 발생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회부터는 참여주체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장려하고 선의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정 대상지(마을)의 중복 출품과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공모제에서 지정공모제로 공모전 운영방식을 전환해 소재지 고갈의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작품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6년(7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는 기존 마을 만들기 부문만 진행했던 공모를 대안주택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총작품 수 78점(마을 만들기 45점, 대안주택 33점)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 모니터링으로 공모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공모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설정

이 공모전은 학생공모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학생 작품만으로는 실제 저층주거지 재생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선정한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해당지역 공무원 중 1인 이상을 참고인으로 포함해 공모전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민이나 공무원 중 1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공모를 진행한다면,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학생이 추구하는 이상적 방향과 주민이 추구하는 실질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가, 활동가, 해당지역 공무원 등도 학생의 작품 제작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현실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우수한 작품과 실제 사업 간 연계

학생공모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실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대해 학생공모전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수상작 중 일부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의 보람과 자부심을 높인 사례가 있다.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저층주

거지재생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학생공모전 참여의향이 있는 학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전형적인 공모전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담당부서와 잠재적 참여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과의 상호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정공모제의 대상지 다양화로 대상지 인근 지역대학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이 주변의 인근 대상지를 선택하여 공모전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의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초기부터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추진과정에 지역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공모전 참여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업분야를 나누어 세분화된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필요도 있다. 마을 만들기 부문에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나의 대상지에 공모전에 참여한 두개의 팀 이상을 합쳐 공동으로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공모전에 참여한 팀을 분석하면 한 학과에서 팀을 꾸려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단일학과로 팀을 만들어 나온 참가자를 보면 자신의 학과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다보니 한 분야에 강점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약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파악하여 하나의 대상지에 우수한 분야의 참가자를 추려 공동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청년인재의 발굴의 장

공모전 참가 학생들이 미래 저층주거지 재생 전문가로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를 서울시에 8년간 전해준 만큼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젊은 인재를 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상 공모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미래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실험적 차원으로 보고 청년활동가 발굴 노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저층주거지 재생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 지식을 제공해 청년활동가 전문 인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공모전이 끝난 후 세미나 참여도와 제출한 작품의 심사 등 복합적 심사를 거친 후 수상과는 별개로 청년활동가로 임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년활동가로 임명된 학생들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공모전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때를 맞춰 취업의 장으로 연계할 수 있다. 매년 공모전이 끝나면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약 2주간 작품을 전시하는데 서울시는 더 많은 인원이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홍보효과로 젊고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취업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서울시 학생공모전의 시행성과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총 8회(작품분석은 3~8회)를 분석하였으며, 그간의 시행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당 연도의 출품작품의 참가자 특성, 공모전 대상지 특성, 공모전 작품 특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참가자 특성분석을 보면, 8차례의 공모전

시행으로 연인원 1,187인, 353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참가자의 수는 4회까지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 5, 6회는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정공모제 도입과, 마을 만들기 부문과 대안주택 부문으로 나뉘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학과가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건축·도시 분야의 학과 소속이 다수였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전공의 학과에서 참가한 사실로 보아 다양한 분야에서 저층주거지 재생에 기울이는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 대학의 지역소재를 보면 서울 199개, 수도권 124개, 지방 30개로 지방권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지가 서울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30개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

대상지 특성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재생 수요가 낮은 강남지역 3개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고르게 나타났다. 2016년(7회)에는 지정공모제가 도입되어 학생들의 대상지 선정고민을 줄여주었으며, 서울시의 입장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과 관련된 참가 학생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작품 특성분석 결과,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세부 제안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제안사업의 비율구성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작품당 제안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매년 작품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발전방향을 도출했다. 첫째,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년 공모전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 고갈과 발굴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공모제를 도입한 것과 동일 주제 공모전 시행 누적으로 작품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안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부문을 도입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 점을 참고하면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학생 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설정이 필요하다. 학생이 가지는 참신성에 주민의 현실감각을 반영하고,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해당지역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더 현실성 높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수 작품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 학생공모전의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한 작품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하여 기초조사용역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인재 발굴의 장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모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수요가 많아져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공모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전 설명회뿐만 아니라 사후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발전방향은 앞으로 공모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될 공모전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출품작품 분석이 전수 출품작 확보가 가능한 3~8회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은 2009년(1회)부터 2017년(8회)까지 9년에 걸쳐 8회를 진행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전수의 출품작품 확보가 가능한 3~8회가 진행된 공모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학생공모전의 성격상 작품은 아이디어 도출·방향설정에서 그쳐 실제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자가 학생인 만큼 마을 만들기 전문지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모전 출품작품의 특성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전적으로 출품작품만 대상으로 분석해 작품제출자의 직접적인 의견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심층분석 대상인 3~8회의 공모전의 작품판별과, 설명자료, 공모신청서의 전수를 조사했지만 현실적으로 수회에 걸친 참가학생들의 제출 작품에 관한 의견과 주민, 행정 등 관계자의 의견조사 등은 불가능했던 관계로 연구자의 공모전 참여 경험과 분석과정의 판단에 의존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생공모전의 시행결과를 분석해 학생공모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마을 만들기 방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순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도록 작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분석을 포함하여 구체적 분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학생공모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과 학생공모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연구방식의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송윤애, 2008,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양승, 2009,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 2013,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또우시게루, 2001, “마치즈쿠리란 무엇인가”, 『도시와 빈곤』, 50: 128~143.
- 김일철·이현우·조경섭, 2002, “공모전 수상광고와 일반 광고의 효과 비교연구”, 『광고연구』, 56: 7~27.
- 최일홍·이창호, 2005, “일본의 ‘마치즈쿠리’ 사례와 시사점”, 『국토』, 288:44~51.
- 이은진, 2006, “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학』, 8(1): 5~31.
- 김준연, 2013, “국내 디자인 공모전의 현황 연구”, 『한국 공간디자인학회』, 26: 159~167.
- 민경석, 2016,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을 통해 본 건축공학교육의 개선 방향”, 『대한건축학회』, 60(4): 55~58.
- 이연숙·오아연·장미선, 2016, “공모전 수상작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주택의 공간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5(4): 125~134.
- 이상훈·이건원·정윤남·김세용, 2016,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137~149.
- 맹다미·백세나, 2017,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8(3): 1~21.
- 맹다미, 2016,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6.
- 서울특별시, 201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한국도시설계사』.
- 서울특별시, 2015, 『6개 그룹으로 살펴본 마을마을공모전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 2015,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분석 연구』.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2월 14일
 1차심사완료일 : 2018년 4월 11일
 2차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9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8월 16일